

차별을 무너뜨릴 필요없이 즉시 평등하다

| 월인 |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현상계의 많은 것을 분별합니다. 그 분별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실체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별이 감각기와 대상의 관계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의타적 현상임을 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적 차별은 이미 차별없는 절대평등의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차별을 보는 '않'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에 의해 나타나고 그 분별은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촉감에는 매끈한 저 탁자가 바이러스에게는 거친 히말라야처럼 느껴지는 차이를 통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 우리 자신만의 것임을 보게 될 때 이 말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현상을 멀리한다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此眞如體無有可遣, 以一切法悉皆眞故.

차진여체무유가견 이일체법실개진고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게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참이기 때문이다.

[논論]

버릴 만한 게 없다는 것은 ‘진여의 체(본질)라 하여 속법(세속의 일, 현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원효는 말했습니다. 명상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하여 세속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원효대사는 아주 깊숙이 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석공주와 살기도 하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아무 이름 없이 어느 절에서 행자로 옥먹어가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의 뜻입니다. 진여의 체는 현상 속에도 있기 때문에 현상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상을 버린다고 해서 체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현상을 떠나서는 체體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상을 떠나서는 진여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이 있어야만 진여의 체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체가 모두 참’이라는 것은, ‘의타성에 의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모두 말과 생각을 떠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의타성이란 기본적으로 분별을 근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은 무엇을 근간으로 합니까? 분별은 본질을 근간으로 합니다. 본질인 불이不二의 세상에다 일시적인 선을 그어놓은 것이 분별이죠? 마음의 세계에 그냥 선 그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바깥세상엔 선이 그어지지 않았는데 저 세상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이리저리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이 세계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감지感知(깨어있기 용어)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 자주 다니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어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음에 선을 그어놓은 세계에서 잠시 빠져나온 때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지만, 많이 빠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잘 알던 것 하나만 보고 기억해내면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아는 전체 세계’가 거미줄처럼 짝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아, 여기구나!” 하면서 마음의 선 그어놓은 세계로 다시 즉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의 세계는 저 밖의 분별없는 세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은 그냥 선 그어놓은 것일 뿐 본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의타성이라고 하지요. 이런 모든 언설의 세계, 생각의 세계는 의타적입니다. 결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컵이라는 것은 도자기, 그 안에 담는 물, 손잡이, 마시는 도구 이런 수많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그중에 하나인 손잡이를 볼까요? ‘손잡이’ 하면 손이 생각나죠? ‘손’ 하면 손으로 두드리는데 생각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연결된 것들을 빼고 컵 자체만 본다면 어땠겠어요? 그것이 바로 의미 없이 감지感知로 느끼는 겁니다. 생각을 떠나서 느낌의 세계에서 보는 거죠. 물론 느낌도 미세한 분별의 세계입니다만, 그래도 생각의 세계에 비해서는 최소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언설言說의 세계는 모두 의타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모든 언설의 세계가 가리키는 본질의 세상에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진여의 세상, 버릴 만한 것이 없는 본체입니다. 즉 중국과 한국이

라는 나누어진 분별이, 땅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붙든 안 붙든 땅은 땅일 뿐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 의식 속에서 그림을 그려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의타적인 언설의 세계는 그것이 지칭하는 본질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진여의 체라는 것은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고, 또 굳이 이름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떠나있기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름을 떼어버릴 필요가 없듯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 분별의 세계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분별의 세계를 떠나도 또는 떠나지 않아도 그 본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 속에 절대가 동시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굳이 무심無心으로, 절대의 세계와 유사한 상태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의 세계가 담고 있는 자체가 곧 본질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상은 현상일 뿐’이라 말하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새 현상을 떠나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차별을 무너뜨릴 필요 없이 즉시 평등하다

원문의 ‘일체법一切法’은 모든 현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규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분열된 마음이 이름 붙여 놓은 개별적인 것들의 관계 속에는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法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현상에 이러한 법이 있으므로 일체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法의 한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규칙에 따라 흘러가는 모습이죠? 물 수水에 갈 거去를 합한 것이 법法입니다. 그런 일체법, 즉 일체의 현상은 그 자체가 모두 참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현상이라는

그것을 원효는 “불괴차별즉시평등不壞差別卽時平等”이라 했습니다. 차별을 무너뜨릴 필요 없이 즉시 평등하다고 했어요. 차별 없음의 세계로 갈 필요 없이, 차별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름의 세계일 뿐이므로, 상대의 세계를 없애지 않더라도 즉시 이 순간에 절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것은 이름 붙여 놓은 것일 뿐, 그렇게 의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효는 “불괴차별즉시평등不壞差別卽時平等”이라 했습니다. 차별을 무너뜨릴 필요 없이 즉시 평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 없음의 세계로 갈 필요 없이, 차별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름의 세계일 뿐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지요. 상대의 세계를 없애지 않더라도 즉시 이 순간에 절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亦無可立, 以一切法皆同如故. 當知一切法不可說不可念. 故
역 무 가 립 이 일 체 법 개 동 여 고 당 지 일 체 법 불 가 설 불 가 념 고
 名爲眞如.
명 위 진 여

또한 주장하는 것이 없으니 모든 일체의 법이 똑같기 때문이다. 마땅히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니 그래서 진여라고 이름 붙였다.

[논論]

진여라는 것은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붙여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앎의 세계는 현상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여라는 것을 건드릴 수 있는가? 모든 현상을 현상으로 보면 끝나는 것일 뿐, 진여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현상을 현상으로 보면 그 자리가 이미 진여가 된 자리입니다.

승조법사¹⁾의 《조론肇論》을 보면 “혹지惑智에서 성지聖智로 나아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지聖智는 본래 앎이 없는 무지이며, 이것이 곧 성스러운 지혜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혹지惑智는 미혹에서 무지라는 것으로, 뭔가 함정에 빠진 지혜라는 말입니다. “나는 드디어 무지에서 벗어났어, 나는 앎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미혹에서 벗어났다는 앎’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내가 없다는 걸 경험했어.” 이런 것들도 모두 혹지입니다. 뭔가 되긴 됐는데 마지막 함정에 빠져있는 거예요. 미혹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앎’이 남아있어요. ‘앎’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서 한 터럭만큼이라도 ‘내가 알았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앎 속으로 빠진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본래 앎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고, 미혹된 지혜는 관조, 관찰, 수행을 통해서 미혹을 타파하여 앎이라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똑똑한 지혜는 미혹을 없앴으로써 얻어진 어떤 ‘앎’인데, 그런 앎마저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스러운 지혜는 텅 비고 고요하여 ‘무지’를 ‘알 만한 것’도 없으므로 진짜 무지이지만, 미혹된 지혜는 관조, 지관止觀, 또는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작용으로 미묘한 ‘앎’이 있어서 ‘허망한 미혹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자아의 본성

1) 승조법사僧肇法師 : 구마라집의 수제자였던 승조법사는 20대에 반야지혜에 통달했는데, 서른 초반 그 명성을 안 황제가 벼슬을 주며 나랏일을 봐달라고 하자 명을 거절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 앞에서 승조는 이런 시를 읊었다.

육신은 원래 주인이 없고(四大元無主)

오감은 텅 비어있는 것(五蘊本來空)

칼날이 목에 닿으니(以首臨白刃)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도다(猶如斬春風)

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알았다’고 여기는 것이
 흑지입니다. 안 것 같긴 한데 뭔가 미진함이 있고 오염된 얇입니다. 그
 러므로 미혹된 얇에서 진정한 얇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되나 결코 붙잡을 수 없다

이어서 중생수순衆生隨順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문을 보겠습
 니다.

問曰. 若如是義者, 諸衆生等, 云何隨順而能得入.

문왈 약 여 시 의 자 제 중 생 등 운 하 수 순 이 능 득 입

答曰. 若知一切法雖說無有能說可說. 雖念亦無能念可念, 是

답왈 약 지 일 체 법 수 설 무 유 능 설 가 설 수 념 역 무 능 념 가 념 시

名隨順. 若離於念, 名爲得入.

명 수 순 약 리 어 념 명 위 득 입

물기를, 만약 이와 같은 뜻이라면, 모든 중생은 어떤 방법을 따라 가야만
 능히 올바른 법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답하기를, 만약 일체의 법이 비록 설명되기는 하지만 설명할 수도 설명할
 만한 것도 없으며, 비록 생각되어지기는 하지만 역시 생각할 수도 생각
 할 만한 것도 없음을 알면, 이것을 이름하여 수순(순서대로 따르는 방편)
 이라고 한다. 만약 생각을 떠난다면 정관正觀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논論]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에 따르면 정관正觀에 들 수 있는
 가?’입니다. 대답을 보겠습니다. 설명되어지기는 하지만(雖說), 설명할
 수도(能說) 설명할 만한 것도(可說) 없다고 했어요. ‘설명되어지기는 한
 다.’는 것은 말로 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근본에 대해서 이
 런 저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근본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붙잡을 수 있고, 도달

할 수 있고,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 이라면 이런 저런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근본에 도달하는 길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은 하지요? 그렇게 말 해놓고는 정작 그것을 찾아가려 하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다. 생각으 로 붙잡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안다고 말하면 벌써 틀 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로 하기는 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붙잡을 수 없고, 거 기에 도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 그래 요. 그러면서도 또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답이 꼭 그 말입니다. 비록 말로 하기는 하나(雖說) 능히 말로 할 수 없고 가히 말로 붙잡을 수 없다(無有能說可說).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생각과 마음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오 직 가능한 것은 어떤 사물을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느낄 때, 그때 이미 ‘근본이 사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눈치 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 로 중도관中道觀이에요. 방편을 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설雖說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붙잡을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버리면 배우는 사람은 텅 빈 공췌에 집착하게 됩니다. 공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 내가 원래 완전한 상 태고 이미 근본에 있다면 굳이 애써서 근본을 발견할 필요가 있나? 가 나, 안 가나 똑같지. 내가 곧 부처라며? 내가 이미 완벽한 부처인데 굳 이 뭘 할 게 있겠어.” 이것이 바로 공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무것 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팔만대장경

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듯이 말로 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결코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본질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말로 하기는 합니다. 말로써 설명하는 것은 공중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離執着於空).

일체의 법이 설명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모든 설명의 기반인 말은 분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분별할 수 없는 것에 경계를 지어놓고 이름을 붙이죠. 땅에 선을 긋고 이름을 붙이듯이. 그런데 그 땅에 붙여진 이름이 땅을 설명해주나요? 그 어떤 것도 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요. 이처럼 뿌리 없는 이름, 즉 ‘이것’과 ‘저것’이라는 분별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저것에 의존한다.’라는 의타성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땅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땅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이라는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설명의 대상은 분명히 ‘없지 않다’고 밝히는 것이 공중에 집착함을 떠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무유능설無有能說. 그렇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설명할 수 없을까요? 땅이라는 근본을 설명하고자 하면서, 선 그어 나누고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땅이 아닙니다. 나누어 붙여놓은 그 이름에 대한 상相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 상相, 즉 ‘느낌’으로는 땅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相일 뿐이에요. 태어나서 줄곧 손으로 만져봐야만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상태라 가정하면, 그 사람에게 “땅이란 이런 거야, 네가 밟고 있는 게 땅이야.”라고 아무리 말 해줘도 그 사람은 땅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으로 ‘만지거나 잡아서 뭔가를 아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태 어날 때부터 땅 위에 서서 살아왔으면서도 땅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여 기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땅을 몰라” 이러고 있 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근본으로 살아왔어요. 하 지만 지금까지는 늘 마음으로 ‘붙잡아서 뭔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마음으로 잡히지 않기에 “나는 모른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근본을 알아채야 하는 것 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땅 위에 서있다는 것을 말입니다.(다음 호에 계 속)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信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不二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